

오리엔탈리즘 패션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서 봉 하

용인송담대학교 스타일리스트과 부교수

요 약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동양에 대한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를 정당화하여 상대적으로 서양의 우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서양에 의한 지리적인 폭력이나 집요하고 교활한 힘으로 서구 이외의 세계를 일정한 지배의 틀 속에 가두는 문화적 장치와 담론의 체계이다.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은 근대의 학문과 지식들을 통해 동양인에게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서양의 복식 문화에서 아시안 스타일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며, 지금도 서구 패션에 아시안 룩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패션은 서구적인 속성을 띠고 있으나 서구중심적인 용어인 오리엔탈리즘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패션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대한 개념을 다각적으로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문헌연구와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는, 첫째, 동양을 저급하고 열등한 타자로 인식한다. 둘째, 서구에 의해 왜곡된 집요하고 교활한 것이다. 셋째, 오리엔트 지역은 주로 서남아시아 지역을 가리켜왔다. 넷째, 동양은 서구를 수용함으로써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이다. 따라서 오리엔탈리즘 패션과 아시안 룩을 혼용하여 무분별 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대부분의 아시안 에스닉 룩은 인체의 착용을 전제로 하고 미를 추구하는 속성 때문에 오리엔탈리즘 룩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아시아의 복식을 기피하고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간주한데서 비롯하여 오리엔탈리즘 룩으로 간주 할 수 있는 작품들이 간혹 나타나기도 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오리엔탈리즘과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고 우리 패션 문화에 서구중심적인 오리엔탈리즘의 이분법적인 편견과 무분별한 수용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오리엔탈리즘 패션, 오리엔트, 오리엔탈 룩, 아시안 에스닉 룩, 아시아 복식

I. 서론

오리엔탈리즘(Orientalism)은 동양풍의 취향을 가리키는 용어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으나, 1978년에 에드워드 사이드(Edward W. Said)의 저서 「Orientalism」¹⁾이 발간된 이후, 서양 중심의 관점에서 바라본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재구성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를 정당화하며 상대적으로 서양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모든 양식과 태도 등을 가리킨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가 이렇게 지리적인 폭력이자 집요하고 교활한 힘으로 서구 이외의 세계를 일정한 지배의 틀 속에 가두는 문화적 장치와 담론의 체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의 패션 관련 분야에서는 서구패션에 나타난 아시아의 복식 스타일을 ‘오리엔탈리즘 룩(Orientalism look)’ 또는 ‘오리엔탈리즘 패션(Orientalism fashion)’이라는 용어로 널리 사용하고 있다. 또한 오리엔트 지역은 주로 지금의 서남아시아 지역과 북아프리카를 가리키는 용어였고, 점차 그것이 확대되어 아시아 전체를 포함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 비서구권 전체를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하므로, 아시안 룩을 오리엔탈리즘 룩으로 바꿔 부르는 것은 더욱 무리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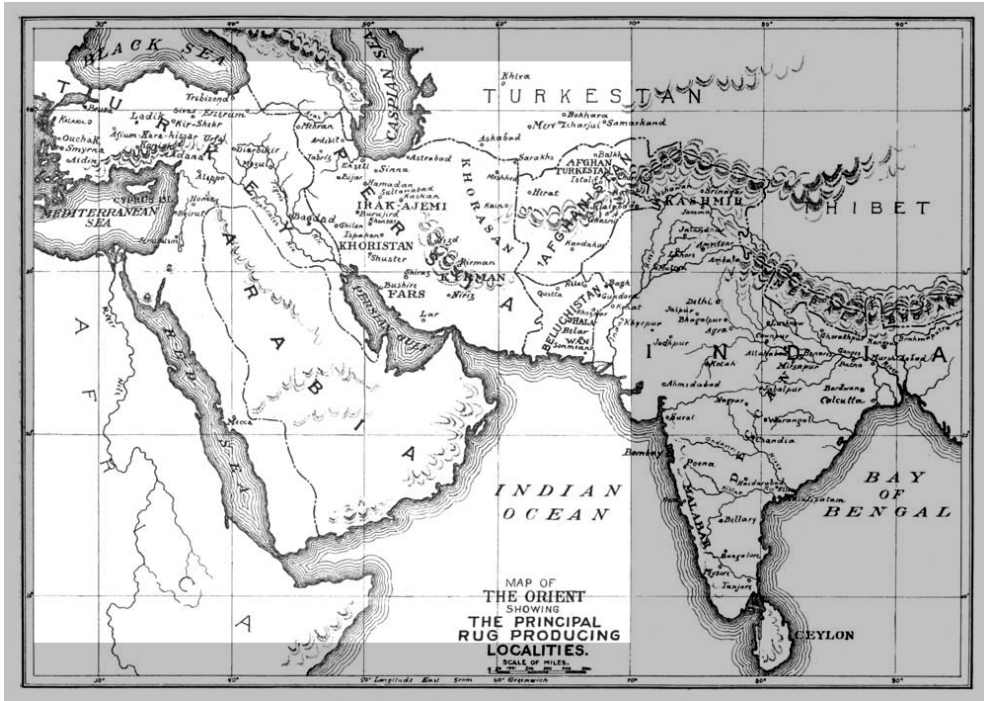
서양의 복식문화에서 아시안 스타일의 역사는 오래된 것이나 특히 18세기의 시누아즈리(chinoiserie), 20세기 초의 폴 푸와레(Paul Poiret), 1960년대의 히피(hippie), 1980년대의 일본 디자이너들의 활약 등에 의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20세기 후반 이후에는 포스터모더니즘과 다원화 경향 등에 의해 서구 패션에 아시안 룩이 꾸준히 등장하고 있다. 근본적으로 패션이 서구적인 속성을 띠고 있으나 서구중심적인 용어인 오리엔탈리즘을 여과 없이 그대로 수용하여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대한 개념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정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 목표로는 첫째,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에 대한 고찰로서 사적인 고찰과 지리적인 고찰을 하며 특히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중심으로 하여 여러 문헌을 고찰한다. 둘째, 서양 복식 문화와 패션에 나타난 아시안 스타일의 사적 연구와 복식을 통한 오리엔탈리즘의 사례를 연구한다. 셋째, 아시안 룩과 오리엔탈리즘 룩에 대한 구분과 각각의 사례를 고찰한다. 넷째, 1990년 이후의 오리엔탈리즘 관련 논문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의 태도를 파악한다. 다섯째, 패션에 있어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해 논의한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기본으로 하며, 실증적 연구를 병행한다. 실증적 연구는 1990년 이후의 패션관련 학위논문 중에서 표제에 ‘오리엔탈리즘’이 들어간 논문 전수를 조사한 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의 태도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서봉하(2008)²⁾의 논문 「Critical Discussion on the ‘Orientalism’ in Fashion Culture」에서 논의된 적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조금 더 구체화된 고찰과 실증적인 연구로 진행 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하여 무분별하게 수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오리엔탈리즘과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대한 개념을 바르게 정립하여 올바른 용어의 사용과 논의의 장이 펼쳐질 수 있기를 기대하며, 우리의 패션 문화 속에서도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의 이분법적 편견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

II. 오리엔탈리즘

“그들(동양인)은 스스로를 표현할 수가 없다. 다른 누군가가 표현해 주어야만 한다.”는 마르크스



<그림 1> 오리엔트 지도
(출처: 『Oriental and Occidental, Antique & Modern』, 1908, p.164)

의 말은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그에 대해 권위를 지니는 서구의 스타일’이라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사이드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한다. 사이드가 ‘동양 실제의 동양의 동양화(이념적 허상으로서의 동양 만들기)’라 부른 이 서구적 담론 체계는 당연히 동양의 살아 있는 현실과는 무관하다. 후진성, 기괴성, 관능성, 정체성, 수동성처럼 동양적 특징으로 거론되는 것들은 순전히 서구인의 상상력으로 만들어 낸 ‘소설’일 따름이다.”

에드워드 사이드의 저서 『Crisis of Orientalism』의 책머리에 나온 위의 글³⁾은 오리엔탈리즘의 속성을 잘 표현하고 있다. 오리엔탈리즘의 발생은 고대 동서양의 교역부터 중세를 거쳐 지금까지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격적인 담론 또는 학문으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

기 시작한 것은 1930년대 프랑스에서 부터였다고 말한다.⁴⁾ 원래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의 문화 전반에 나타나는 동방풍(東方風)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서양 중심의 관점에서 동양과 서양을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동양을 고정된 시각과 왜곡된 인식으로 재구성하고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배를 정당화하여 상대적으로 서양의 우월성을 나타내려는 모든 양식과 태도 등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오리엔탈리즘이 동양풍의 취미나 동양학, 이국적인 문학이나 그림 등을 지칭하는 용어에서 서양의 동양에 대한 인식 즉, 서구 제국주의의 산물로서 동양에 대한 이데올로기적 한계를 설정하는 의미로 본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은 1978년에 발간된 『Orientalism』이라는 책에서 에드워드 사이드가 설정한 개념이다.⁵⁾ 오리엔탈리즘은 서구 제국주의

의 식민지 지배를 합리화시키는 수단일 뿐 아니라,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며 위압하기 위한 서양의 스타일이다.⁶⁾ 오늘날에도 오리엔탈리스트(Orientalist)들은 다양한 문화 매체와 양식들을 통해 동양과 서양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있으며, 동양을 열등한 착취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오리엔탈리즘을 끊임없이 재생산하고 있다. 이렇게 위험한 오리엔탈리즘이 다양한 문화 매체와 양식들을 통해 동양인에게도 무비판적으로 수용되고 있는 현실이다.

서양이 동양을 바라보는 인식이라는 범위도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오리엔탈리즘의 대상이 되는 지리적인 범위도 매우 복잡하다. 오리엔탈리즘의 기원이 된 ‘오리엔트(Orient)’는 그 자체의 지리적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다양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오리엔트는 ‘해가 뜨는 방향’이라는 뜻에서 발전하여 ‘동방’ 또는 ‘동양’을 의미하게 되었으며, 점차 이질적인 문화를 가진 ‘동방세계’라는 뜻이 부가되어 비잔틴 제국과 이슬람 세계로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었다. 근대에 들어 그 적용범위가 더욱 넓어져 근동(Near East), 중동(Middle East), 극동(Far East) 지역을 총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⁷⁾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중세와 근대 초기만 하더라도 오리엔트는 고대 이집트를 포함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즉 지금의 중동지역을 주로 가리키는 용어였다. 이전의 많은 오리엔트 지도들이 중동지역을 가리키고 있는 것으로도 알 수 있는데, <그림 1>⁸⁾의 지도에서 대략적으로 밝은 부분에 해당한다. 『Map of the Orient』라고 쓰여 있는 이 지도는 중동지역을 중심으로 북동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 일부, 그리고 인도를 포함하고 있다. 좀 더 확대하자면, 근동에 해당하는 북아프리카와 그리스, 터키 등의 지역과 중앙아시아와 인도까지를 포함하며, 더 확대를 하자면 동아시아까지를 모두 포함한 아시아 전체로 그 지리적 범위가 확대 될 수 있고, 가장 넓게는 비서구권 전체를 지칭하는 대단히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되기도 된

다. 결국 오리엔트가 동쪽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는 하지만, 오리엔트와 여기에서 파생된 용어인 오리엔탈리즘은 단순히 아시아 또는 아시아의 문화를 가리키는 용어로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다.

근대의 시발점인 르네상스시기에 유럽의 모든 분야에서 과거와 급격하게 단절되었던 변화는 봉건질서의 전복, 개인과 자유의 발견, 권력으로부터 인간 이성의 해방, 중세의 지적 억압으로부터 지식의 해방, 그리하여 자연의 속박에서 벗어난 근대의 탄생을 알리는 영웅적 색채로 그려졌다. 그러나 과거의 오랜 전통과 단절되면서 신학적, 정치적인 장치들의 팔다리를 절단함으로써, 그 변화는 큰 외상을 입었다. 이 외상은 유럽의 전 세계적 팽창과 결합되어 있었으며, 바로 이 외상이 근대 오리엔탈리즘이 출현하는 데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했고, 오늘까지도 남아 있다.⁹⁾

오리엔탈리즘¹⁰⁾은 ‘오리엔트(Orient)’에 ‘이즘(ism)’이 합성된 용어이지만, 오리엔트가 아닌 옥시덴트(Occident)가 주체가 되어 주체인 서양이 타자인 동양에 대하여 나타내는 반응이나 태도를 의미한다.¹¹⁾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을 서양과는 다른 이국적이고 이질적인 대상, 괴상하고 후진적이며 관능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지닌, 그래서 서양에 의해 지배되고 교정되어야 할 열등한 타자로 보는 의식이며, 이것은 거의 변함없이 서양인의 무의식 속에 내면화되어 왔다.¹²⁾ 오리엔탈리즘은 유럽의 실제적인 문명·문화의 한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며 그 내적인 구성 부분인 오리엔트를 문화적으로나 이데올로기적으로도 하나의 양태를 지닌 담론으로써, 또한 제반 제도, 학식, 형상, 신조 그리고 식민지 관료제와 식민지적 양식에 의해 지탱된 것으로 표현하고 표상하는 문화적 헤게모니의 체계인 것이다. 유럽 문화는 ‘은폐된 자기’이기도 한 오리엔트를 소외시킴으로써, 자신들의 정체성과 힘을 획득할 수 있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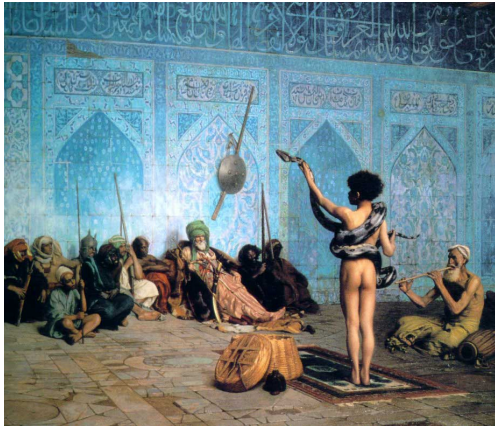
오리엔탈리즘의 근원적인 문제들은 오리엔탈리즘이 근대의 ‘지배적·위압적인 지식의 체계’에서 생겨났음을 말해 준다. 또한 탈 오리엔탈리즘 적 사고란 바로 그와 같은 지식의 체계를 권력의 제도와 실천 사이의 상호작용에서 찾고, 그 범주나 주체로까지 파고들어 비판적으로 재구성해 가는 지적이고 정치적인 실천인 것이다. 반면 오리엔탈리즘은 현실의 정치적인 기획을 뒤쫓으면서 거기에 부가되는 단순한 이데올로기와 같은 부류가 아니라, 오히려 정치나 권력의 중심부에서 그것의 작용과 함께 위력을 발휘하는 집요하고 교활한 힘으로 서구 이외의 세계를 일정한 지배의 틀 속에 가두는 문화적 장치와 담론의 체계인 것이다. 오리엔트(동양)는 이 오리엔탈리즘에 의해서 연구·판결·훈련·통치되는 대상으로서, 초월적인 주체인 서구에 의해 자의적으로 표상되고 창조되었다.¹⁴⁾ 따라서 오리엔탈리즘은 고도의 문체제기적인 용어로서 중립적 의미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며, 이슬람학자 버나드 루이스(Bernard Lewis)에 따르면 ‘이제는 구제될 가능성을 넘어서 오염된 것’이 되었다.¹⁵⁾

에드워드 사이드가 「Orientalism」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서양 사회의 제요소(범죄자, 광인, 여성, 빈민)와 연관된 ‘동양인’의 표상을 가리키고 있다.¹⁶⁾ 오리엔탈리즘은 분명히 지리적 폭력이다. 그것은 ‘이 쪽’과 ‘우리’, ‘저쪽’과 ‘그들’ 사이에 인식론적이자 존재론적인 지리학상의 경계를 설정하고, 전자의 특권적인 장소로부터 후자를 일정한 담론 질서 속에 가두려고 하는 것이다. 둘 사이에는 요한 고틀리프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가 말한 ‘내적 국경’과 동일한 의미에서 ‘내적 경계’의 단층이 가로지르고 있고 제국주의적인 심상지리가 형성되어 있다.¹⁷⁾ 많은 식민지가 독립을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획득을 뒷받침했던 제국주의적인 문

화는 여전히 존재하다. 진정으로 개방적이며 편향이나 편견이 없는, 계몽된 대화로서의 오리엔탈리즘은 확실히 불가능하며, 심지어 생각할 수조차 없다.¹⁸⁾ 따라서 세계화의 추세 속에서 동양과 서양의 상호 발전적인 문화 교환을 위하여 오리엔탈리즘을 뛰어 넘는 관계의 가능성을 계속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서양의 제국주의적 권력 팽창의 부산물로 보는 오리엔탈리즘에 대하여, 존 클라크(John J. Clarke)는 서양의 광범위한 지적 전통에서 동양 사상이 수행한 역할을 밝힘으로써 인식의 전환을 주장하고, 동양에 매혹된 낭만주의자에서부터 인종차별적인 서구 우월주의자에 이르기까지 서구 지식인을 재평가하고 있다. 그는 오리엔탈리즘이란 용어가 주로 중동의 문화를 가리킴을 지적하며, 오리엔탈리즘을 단순히 서양의 제국주의적 권력 팽창의 부산물로 보는 논의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지만, 본 논문에서는 서구 중심적이며 왜곡된 의미를 내포하는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을 배격하고자 한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는 19세기 초에 프랑스인이 개척한 미술의 한 장르를 서술하기 위해 사용되었으며, 점차 여러 유럽 나라 예술가들의 중동이나 북아프리카를 소재로 한 작품을 서술하는데 사용되었다.¹⁹⁾ 문학과 음악 뿐 아니라 시각 예술 분야에서도 수많은 오리엔탈리스트들이 작품을 남겼는데, 사이드의 급진적 이론에 의해 이들 작품이 재해석되고 있다. 오리엔탈리스트로 불리는 예술가들은 상당히 많은데 대표적인 화가로는 19세기 중후반에 활약한 프랑스의 장 레옹 제롬(Jean Leon Gerome)을 들 수 있다. <그림 2>²⁰⁾는 제롬이 1880년에 제작한 『The Snake Charmer』로 나체의 소년이 커다란 뱀을 몸에 휘감은 채 한 무리의 남성들 앞에 서서 재주를 선보이고 있는 작품이다. 이 그림을 접하는 감상자들은 먼저 소년의 나신에 주목하게 되고 곧이어 이 소년을 바라



<그림 2> 『The Snake Charmer』,
Jean Leon Gerome, 1880
(출처: 『Orientalism : Delacroix to Klee』, 1997, p.997)



<그림 3> 『The Slave Market』, Jean Leon Gerome, 1866
(출처: 『Noble dreams, wicked pleasures : Orientalism in America, 1870-1930』, 2000, p.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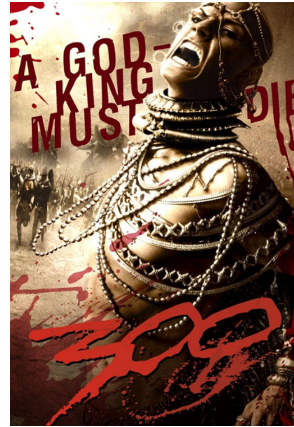
보고 있는 앓아 있는 한 무리의 남성들에 대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게 된다. 소년의 여린 몸을 성인들의 욕망을 대변하듯 징그러운 뱀이 휘감고 있는데, 이는 동양의 미개함이나 부정함을 강조하기 위한 상상 속의 그림이다.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작품 중 상당수는 동양의 여성을 소재로 하고 있으며 그 작품들의 대부분이 동양의 여성을 순종적이고 수동적인 이미지로 조작하고 있는데, <그림 3>²¹⁾은 제롬의 1866년 작품인 『The Slave Market』으로 그 한 예이다. 이 그림은 노예시장의 벌거벗은 여성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남자들 앞에 서 있는 장면이다. 오리엔탈리스트들의 작품 속 여성들은 이와 같이 수치스러운 모습이나 교태를 부리는 모습, 또는 남성을 기다리는 순종적이거나 수동적인 모습 등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러한 작품들은 유럽인들에게 동양의 이미지를 비이성적이고 비도덕적인 것으로 왜곡시켜 왔으며, 동양을 지배해 줄 사람이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하도록 만들어 온 교활한 장치들이었다.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은 동양에 대한 서양의 지적, 기술적 지배의 표현이자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우위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파악했다. 즉, 오리엔탈리즘은 하나의 실재가 아니라, 하나의 구성물, 지배의 상징, 권력의 수단을 표상하는 것으로 파악한 것이다.²²⁾ 이러한 경향은 현재까지도 예술의 각 장르와 우리 문화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사례로 2006년에 미국 할리우드에서 제작된 영화 『300』을 들 수 있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온다! BC 480년, 300명의 전사들이 100만 대군과 맞섰다’라는 설명이 붙은 영화 『300』은 페르시아의 100만 대군과 맞서 싸운 300명의 용감한 스파르타 용사들이라는 설정을 하여 만든 영화이다. 여기서 페르시아는 오늘날의 이란으로 동양을 표상하고, 그리스의 스파르타 군사들은 서양을 표상한다. 영화는 서양과 동양의 구도를 선과 악, 도덕과 부도덕, 문명과 야만의 구도를 극대화 하여 구성하였으며, 스파르타 병사들은 <그림 4>²³⁾와 같이 근육질의 멋진 남성들로 묘사된 반면에, 페르시아의 병사들은 괴물의 모습을 하거나 괴상한 가면을 쓴 모습으로 묘사되었고, 왕 조차도 <그림 5>²⁴⁾와 같이 혐오스러운 모습의 동성애자로 설정되어 있다. 이는 교활하게 조작되어 온 오리엔탈리즘의 속성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림 4> 영화 『300』의 포스터: 스파르타 전사
(출처: http://www.wildaboutmovies.com/movies/300_Movie.php)



<그림 5> 영화 『300』의 포스터: 페르시아의 왕
(출처: http://www.wildaboutmovies.com/movies/300_Movie.php)

사레이다.

영화 『300』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폭력적인 서구의 오리엔탈리즘에 무더져 있으며 서구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과정과 국제 정치적인 역학 관계에 의하여 우리 스스로가 오리엔탈리즘 적인 시각에 동조하기도 한다. 특히 서구의 문화였던 변화의 속성을 가진 패션문화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여과 없이 받아들여 오리엔탈리즘을 아시아적인 취향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III. 아시안 스타일의 확산과 복식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오랫동안 서양은 동양에 대해 매혹을 느껴 왔다. 수 세기에 걸친 서양의 많은 사상가나 작가, 등의 지식인들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며, 자신들과는 전혀 다른 문화권인 동양의 매력에 사로잡혀 있었다. 고대 그리스에서도 동양은 경이의 곳으로 여겨졌고, 인도의 별거벗은 수도자들도 그들에겐 관심의 대상이었다. 13세기 마르코 폴로(Marco Polo)의 동방 여행은 유럽인들의 마음속에

형성된 동양 문화에 대한 오랜 상상적 구성의 서곡이 되었다. 그러나 이 구성의 새로운 전환점을 이룬 것은 16세기 이후 지리상의 발견과 그 결과로 인해 나타난 유럽의 관심과 세력의 팽창이었다. 그 전까지는 중동을 벗어난 오리엔트 지역은 서구인들의 상상력 밖에 존재하는 지역이었으나, 이제는 선교사들과 여행자, 중개상, 식민지 행정가 그리고 학자들이 전하는 여러 가지 정보가 유럽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정보들은 때로 왜곡되기도 하고, 불확실한 환상과 소망으로 물들어 있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인들의 마음에 마력과 같은 매력을 주었다.²⁵⁾

역사적으로 동양의 복식은 서양 복식에 많은 영향을 끼쳐 왔고 지금까지도 매 시즌마다 새로운 패션을 선보여야 하는 디자이너들에게는 옛것에 대한 복습과, 신비스럽고 동경의 대상이 되는 동양은 좋은 아이디어의 원천이 되고 있다. 14세기에는 실크로드를 통한 중국 실크의 전래로 중국의 용 문양이나 봉황 문양을 본 딴 실크를 제작하였고²⁶⁾ 17세기 이래 서양의 남성들은 인도식 가운을 실내에서 착용기도 했다. 18세기에는 중국에서도 입던 땅은 머리 형태의 피그테일(pigtail)이 군인을 중심으로 유행하기 시작해 일반인들에게도 보급되



<그림 6> Nicholas Boylston의 초상, John Singleton Copley, 1773
(출처: 『Fashion and Orientalism : dress, textiles and culture from the 17th to the 21st century』, 2013, p.53)

는 등 매력적인 중국풍이 생활 문화에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당시에는 중국, 일본, 인도의 문화 구분 없이 비유럽 국가들의 스타일을 이국적 취향으로 결합해 사용했다. 나폴레옹의 이집트 원정은 프랑스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조류를 탄생시켰는데 그 영향으로 터번(turban)이 유행하게 되었다.²⁷⁾ 서양복식의 역사를 보면 18세기 시누아즈리(chinoiserie, 중국취향)는 귀족 취향의 하나로 중국 풍을 비롯한 동양 여러 문화권의 전통 복식으로 코코시대의 직물이나 실내 장식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²⁸⁾

<그림 6>²⁹⁾은 영국에서 활동했던 화가 존 싱글턴 코플리(John Singleton Copley)의 1773년 작품으로 사업가이자 자선가였던 대부호 니콜라스 보일스톤(Nicholas Boylston)의 초상이다. 이 초상화에서 보일스톤은 중국풍의 복식을 착용하고 있는데, 머리에는 핑크색의 부드러운 보이는 모자를 쓰고 있으며, 화려한 바난 나무(banyan tree)와 대담하게 큰 꽃문양이 있는 광택이 나는 실크로 된 의상을 착용하고 있다. 19세기경에도 영국의 상류층에서도 터키와 북아프리카풍의 오리엔탈 스타일(Oriental style)을 착용하는 것이 유행하였고, 일본



<그림 7> 폴 푸와레가 1910년 발표한 오리엔탈 풍의 작품 (사진: Henri Manuel)
(출처: 『Poiret : Paul Poiret, 1879-1944』, 1986, p.122)

기모노 스타일의 복식도 상류층 여성들의 실내복으로 애용되었다.

아시아의 복식 체계는 폴 푸와레에 의하여 유럽패션에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 <그림 7>³⁰⁾은 푸와레가 1910년에 발표한 오리엔탈 풍의 작품들이다. 러시아 발레단의 1909년 파리 공연과, 1911년에 푸와레 주최로 열린 『The Thousand and Second Night』를 주제로 한 파티는 동양풍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튜닉과 하렘팬츠, 깃털 장식의 터번, 긴 진주목걸이, 강렬한 오렌지, 비취빛 초록색, 에메랄드 등의 동양적 색채, 기모노 슬리브, 오비 벨트, 꽃과 나비, 공작새의 자수 등 동양적인 모티브가 적극 응용되어 환상적인 분위기를 자아내었다. 또한 푸와레는 동양적인 요소들을 그의 디자인에 적극 도입함과 동시에 코르셋을 벗음으로써 자연스럽게 인체를 해방시켰다.³¹⁾

1960년대 말에 반전, 반 물질주의를 앞세운 히피는 동양의 사상과 종교에 감흥을 받은 복식을 전파시켜 패션계의 관심을 과거와 동양문화로 옮기는데 기여했다.³²⁾ <그림 8>³³⁾은 1960년대 영국의 히피 이미지인데, 긴 머리와 화려한 문양의 카프탄, 동양풍의 장식 등을 한 차림이다. 히피운동은



<그림 8> 1968년경 영국에서 열린 페스티벌의 히피차림 참가자
(출처: http://dandyinaspic.blogspot.kr/2013_07_01_archive.html)



<그림 9> Kenzo 1986 S/S 컬렉션
(출처: 'Kenzo', 1999, p.35)

하위문화스타일을 형성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그 사상은 물신주의에 대한 항거, 인디언 주제, 신비주의, 전원풍(arcadian), 공동체 의식, 사랑, 현세지향의 쾌락주의, 플라워 파워, 지각의 문(Door of Perception) 등이다.³³⁾ 특히 그들은 ‘신비주의’를 추종하였는데, 아메리카 인디언 문화, 혹은 동양의 신비한 철학이나 예술, 종교 등에 대한 환상과 관심을 뜻한다. 따라서 그들은 인도의 명상이나 음악, 춤에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 터키, 이란, 인도, 파키스탄, 네팔 등을 여행하며 그들 나라의 민속적인 복식 아이템을 차용하거나 스스로 만들어 입고 다니면서 패션에서 히피풍을 창조하였다. 또한 그들은 구멍 난 진 바지에 패치워크, 비즈 등의 장식, 머리에 꽃이나 새 깃털 장식, 겹쳐 입기 등을 애용하였다³⁴⁾.

1980년대에는 다카다 겐조(Takada Kenzo)를 비롯한 이세이 미야케(Issey Miyake), 요지 야마모토(Yohji Yamamoto), 레이 가와쿠보(Rei Kawakubo) 등의 일본 디자이너들이 낭만적인 분위기의 일본, 중국, 러시아의 민속적 요소를 과감하게 발표하면서 민속 풍은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들은 동양의 복식과 서구의 복식을 절충하여 새로운 스타일을 선보임으로써 아시아 패션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이들은 비서구를 타자의 위치에 두려는 서구적인 요구 사이에서 서구적이라고 말할 수 없는 방식을 혁신시킴으로써 긴장감을 고조시켰고, 이는 결국 일본풍이 부상하는 계기가 되었다.³⁵⁾ <그림 9>³⁶⁾는 겐조가 1986년에 발표한 작품으로 승려들처럼 접어서 걸친 스톨라(stola)와 혈령한 팬탈롱(pantalon)의 작품이다. 피에르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80년대에 일본 디자이너들에 의해 일어난 일들은 앙드레 쿠레쥬(Andre Courreges)가 오프뚜뽀르에 미니스커트를 소개함으로써 나타났던 60년대의 패션 혁명과 유사하다”고 하였다.³⁷⁾ 1980년대는 파리가 패션 도시로서의 권위가 침식당하고 있던 시기로, 일본 디자이너들의 성공은 파리가 진정한 글로벌 패션 센터로서의 지위를 안정되게 만들었다.³⁸⁾

1990년대에는 세계 패션계의 여러 디자이너들과 유명 인사들이 ‘아시아의 스타일’을 받아들여 파급시켜 나갔으며, 아시아를 주제로 한 영화의 붐을 비롯하여 문화 전반에 걸쳐 아시아의 문화들이 소개되고 상호 교류하면서 아시아 룩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다.³⁹⁾ 2000년대 이후에는 이슬람과 서구의 대립과 갈등 속에서 이슬람 풍이 지속되고 있고, 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고 있는 인도와 중국



<그림 10> 오리엔탈리즘 복식의 사례: 서구에 의해 왜곡된
 무슬림 여성의 모습
 (출처: 『The Colonial Harem』, 1986, p.126)



<그림 11> 상의를 노출한 이슬람 여성의 왜곡된 엽서사진
 (출처: <http://www.metropostcard.com/metropcbloga9.html>)

풍의 유행도 계속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와 몽골 풍 등 아시아 각국의 민속풍 스타일이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는 등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이 지속되면서 아시안 스타일이 서구 패션에서 하나의 주류로 지속되고 있다.

이상에서 열거한 것들과 같은 서구 패션에서의 아시안 스타일을 흔히 ‘아시안 룩(Asian look)’ 또는 ‘아시안 에스닉 룩(Asian ethnic look)’ 등으로 부른다. 일반적으로 에스닉 룩은 유럽 또는 미국까지를 포함한 구미(歐美)권을 제외한 지역의 민족 풍을 지칭하는데, 이것은 패션을 서구중심주의(West-centrism) 시각으로 바라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의 민속복식을 모티브로 한 복식 뿐 아니라 북미의 인디언 풍이나 유럽 국가들의 민속 풍 복식도 넓은 의미의 에스닉풍 복식에 포함된다.⁴⁰⁾

그런데 이러한 아시안 스타일을 ‘오리엔탈리즘 룩’ 또는 ‘오리엔탈리즘 패션’으로 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과거에는 오리엔탈리즘이 단순히 동방 취향을 나타내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했었지만, 특히 에드워드 사이드가 1978년에 발간한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책에서 오리엔탈리

즘이라는 용어가 서양의 지리적 폭력으로 규정된 이후부터는 제국주의적 지배와 침략을 정당화하는, 서양의 동양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태도 등을 가리키는 말로 쓰인다. 오리엔탈리즘이 ‘동양과 서양이라는 이분법적 구별에 바탕을 둔 사고방식’이자,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기 위해 왜곡된 것’이라는 것은 에드워드 사이드나 일부의 주장이 아니라 국가와 지역, 각 분야를 막론하고 전 세계적으로 이미 고착된 의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복식을 재현하거나 부분을 차용한 서구의 아름다운 복식을 오리엔탈리즘 룩으로 칭하는 것은 매우 아이러니한 것이다.

패션 문화에서도 오리엔탈리즘이란 예외 없이 ‘타자’의 문화이며, 서양의 우월성을 돋보이게 하는 교활한 장치이거나 서양의 부족한 면을 채워주는 보완재에 지나지 않는다.⁴¹⁾ ‘오리엔트(Orient)’ 또는 ‘오리엔탈(Oriental)’이라는 용어 또한 이분법적인 용어이기는 하지만, 동양의 스타일을 ‘오리엔탈 룩’ 또는 ‘오리엔탈 패션’이라고 하는 것과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오리엔탈리즘의 근원적인 문제들은 오리엔탈리

즘이 근대의 지배적·위압적인 지식의 체계에서 생겨난 집요하고 교활한 힘으로 서구 이외의 세계를 일정한 지배의 틀 속에 가두는 문화적 장치와 담론의 체계이며⁴²⁾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을 저급한 타자로 비하시키기 위해 서구에 의해 왜곡되고 조작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림 10>⁴³⁾과 <그림 11>⁴⁴⁾은 복식을 통한 오리엔탈리즘의 사례이다. <그림 10>은 19세기 후반에 서구인에 의해 왜곡된 아랍 여성의 모습으로 그림 속 여성은 가슴을 드러낸 채 히잡(hijab)의 일종인 야크마크(yachmak)를 착용하고 있다. <그림 11>은 20세기 초에 촬영된 엽서의 사진으로 얼굴은 전통적인 장식이 된 히잡과 스커트를 착용하고 있으나, 상체를 노출시키고 있다. 이 그림들은 서구의 식민지적 관점에서 얼굴과 온몸을 옷으로 감싼 여인들에 대한 호기심과 가려진 여인에 대한 매혹을 넘어서 폭력적인 집착을 통해 히잡에 가려진 아랍의 여성의 옷을 벗기고 처녀성을 능욕하는 환상을 드러낸다.

에드워드 사이드가 『오리엔탈리즘』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은 ‘이방인’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듯한 정체성을 공유하는 서양 사회의 제요소(범죄자, 광인, 여성, 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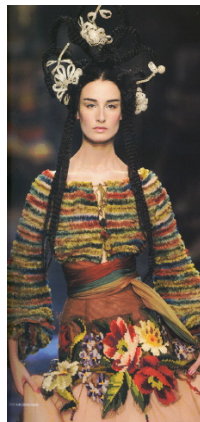
민)와 연관된 ‘동양인’의 표상을 가리키고 있다.⁴⁵⁾ 서양인에 의해 조작되고 과장된 <그림 10>과 <그림 11>은 이슬람 문화와 이슬람 여성의 복식에 대한 이해 없이 동양의 문화를 저급한 것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이슬람 공포증과 인종차별주의를 부추기는 역할을 해왔다. 이는 동양에 대한 서구의 지리적인 폭력으로, 복식을 통한 오리엔탈리즘의 극단적인 사례 중 하나이다.

IV. 오리엔탈리즘 패션

서구 패션에서 아시아풍의 유행은 대부분 긍정적인 것이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복식이나 패션의 속성과도 직결 된다. 서구 패션에서 선보이는 의상들은 기본적으로 착용을 전제로 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하므로 서구 패션에 등장한 아시안 룩은 오리엔탈리즘의 속성과는 큰 차이가 있다. 서구 패션에 의해 동양의 이미지가 왜곡되고 훼손되어 온 역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동양의 형식이나 문양, 색채 등을 차용했다는 이유만으로 현대 서구패션에 나타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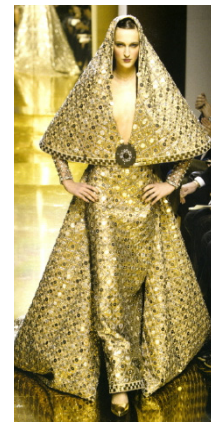
<그림 12> Anna Sui 2004 S/S 컬렉션
(출처: 『Collezioni Donna』, No.97, p.63)



<그림 13> Jean Paul Gaultier 2005-06 F/W 컬렉션
(출처: 『Collezioni Donna』, No.108, p.221)



<그림 14> Lissi Fritzenschaft 2000-01 F/W 컬렉션
(출처: 『Collezioni Donna』, No.77, p.361)



<그림 15> Haute Couture Brides 2004 S/S 컬렉션
(출처: 『Collezioni Donna』, No.99, p.343)



<그림 16> Christian Dior
2003-04 F/W 컬렉션
(출처: 『Collezioni Donna』,
No.95, p.409)



<그림 17> John Galiano 2003
S/S 컬렉션
(출처: 『Collezioni Donna』,
No.92, p.330)



<그림 18> Christian Lacroix
2003 S/S 컬렉션
(출처: 『Collezioni Donna』,
No.90, p.459)



<그림 19> Jean Paul Gaultier
2002-03 F/W 컬렉션
(출처: 『Collezioni Donna』,
No.89, p.300)

모든 동양적 스타일을 오리엔탈리즘 패션이라고 칭하는 것은 매우 커다란 잘못이다. 앞서 기술한 것과 같이 주로 서남아시아 지역을 지칭하는 오리엔트는 동양을 과장하고 저급한 타자로 인식하는 서구중심의 개념이기 때문이다.⁴⁶⁾ 아시아 복식의 형식을 차용한 서구의 아시안 룩은 아시아에 대한 관심의 증가와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 속에서 서구 패션의 중요한 테마 중 하나로 자리매김해 왔다.

아시안 에스닉 룩은 앞에서 설명한 오리엔탈리즘 룩과 명백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서구패션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속성과 인체에 착용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상업적인 속성을 띠고 있다는 점 등에서 기본적으로 오리엔탈리즘 룩이라고 칭하기 어렵다. 그러나 서구의 패션 컬렉션에는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과장되거나 왜곡된 스타일 또는 예술적이거나 충격적인 스타일의 아시안 룩이 선보이기도 하는데, 이 중에는 오리엔탈리즘 룩이라고 볼 수 있는 의상 작품들이 이따금씩 등장 한다.

<그림 12>부터 <그림 15>까지의 네 개의 이미지는 오리엔탈리즘 룩이라고 할 수 없는 의상 작품이다. <그림 12>⁴⁷⁾는 한국이나 중국의 소수민족의 의상에 나타나는 색동 무늬를 사용하였고, <그림 13>⁴⁸⁾은 중국 소수민족의 의상이나 머리장식에서 디자인의 모티브를 가져왔으며, <그림 14>⁴⁹⁾는

긴 천을 몸에 두르고 감고 묶는 방식의 인도 사리를 응용한 인도풍 복식이고, <그림 15>⁵⁰⁾는 서아시아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착용하는 히잡과 긴 장옷을 모티브로 하여 화려하게 디자인한 작품이다. 이들 의상들은 모두 아시아의 복식을 바탕으로 한 아름다운 서구 패션으로 볼 수 있으며, 결코 오리엔탈리즘 룩 또는 오리엔탈리즘 패션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아시안 룩 중에서도 동양의 복식을 기괴하거나 우스꽝스럽게 재현하여 오리엔탈리즘 룩의 성격을 띤 작품들이 있다. <그림 16>⁵¹⁾은 일본의 전통복식과 문양, 얼굴 분장을 재현한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의 2003년 F/W 작품인데 복식의 구조와 문양, 분장을 과하게 과장하여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다. 존 갈리아노(John Galiano)가 2003년 S/S컬렉션에 선보인 <그림 17>⁵²⁾의 작품은 인도의 사리에서 모티브를 따왔으나 손과 신체의 부분을 짙은 파란색으로 칠하고, 얼굴에 과장한 가면을 쓰고 있는 등 전체적인 기괴한 분위기를 연출하여 동양의 복식을 저급한 이미지로 조작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18>⁵³⁾은 2003년 S/S 시즌의 크리스티앙 라크루아(Christian Lacroix)의 작품으로 동양풍의 장식과 디테일을 가진 아시안 룩에 기괴한 가면을 씌움으로써 얼굴을 가리는 동양의 스타일을 유희적인 시각

으로 재현하였다. <그림 19>54)는 장 폴 고티에(Jean Paul Gaultier)의 2002년 F/W작품으로 얼굴을 가리는 이슬람풍 복식을 과하게 과장하여 모델의 눈을 은폐하고, 모델의 신체를 끈으로 감아 억압 받는 듯한 동양 여성의 이미지를 띠고 있다.

오리엔탈리즘 패션은 겉으로 드러난 형식과 함께 그 내적 사유가 중요하므로 이러한 의상들을 오리엔탈리즘 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이름답다는 기준이 모호해지고, 패션에서 유희적 특성이 증가해 왔으며, ‘추(醜)’나 ‘기괴함’도 미적 범주 안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오리엔탈리즘 룩이라고 규정하기가 더욱 쉽지 않다. 하지만 앞에서 살펴본 <그림 12>부터 <그림 15>까지의 복식들과 달리 이들 복식들은 동양의 복식을 기괴하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연출하거나 쇼를 위한 유희적인 모티브로 활용하여 오리엔탈리즘 룩의 성격을 띤 것으로 분류 할 수 있다.

오리엔탈리즘 룩은 넓은 범위의 아시안 룩에 포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아시안 룩과 오리엔탈리즘 룩의 차이점을 명확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시안 룩은 동양의 아름다운 문화와 신비로움, 자연주의에의 동경, 포스트모더니즘과 타원주의 영향 등이 배경이지만, 오리엔탈리즘 룩은 동양을 저급한 타자로 인식하는 서구 중심의 개념에서 출발한 것이다. 오리엔탈리즘 룩이 예술적인 표현의 과장으로 인식 될 수도 있으나 위의 그림들과 같이 아시아의 문화나 복식이 저급하거나 기괴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했거나, 그러한 인식을 심어 주게 된다. 둘째, 아시안 룩은 동양의 복식에서 모티브를 얻어 서구 복식에 접목한 것으로 동양미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지만, 오리엔탈리즘 룩은 동양의 복식을 과장하거나 왜곡하여 동양의 이미지를 괴상하고 우스꽝스럽게 표현하거나 억압된 이미지로 표상한다. 셋째, 아시안 룩은 한국, 중국,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인도를 중심으

로 한 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등 아시아 전체의 복식을 배경으로 한 용어이지만, 오리엔트가 주로 서남아시아와 북아프리카의 중동지역을 가리키는 용어였고, 주로 이슬람 문화권을 가리키는 용어였다는 점에서 아시안 룩과 오리엔탈리즘 룩은 지리적 배경에 다소 차이점이 있다. 물론 최근에는 오리엔트 지역이 전 아시아권 또는 비서구권 전체를 가리키는 확대된 개념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오리엔탈리즘 룩 또는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대한 실증적 연구를 병행하기 위하여 1990년 이후에 발표된 학위 논문을 대상으로 고찰하였다. 조사는 서울의 국립중앙도서관 학위논문실에서 진행하였으며, 아시안 에스닉을 주된 주제로 하는 패션 관련 학위 논문 중 제목에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트’, ‘동양’, ‘동방풍’, ‘아시안 에스닉’, ‘아시안 룩’ 등이 들어간 논문을 검색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표 1>과 같이 조사된 총 28편의 논문 중 제목에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논문이 14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오리엔탈’과 ‘동양’이 각각 5편, ‘아시안 에스닉’과

<표 1> 1990년 이후의 학위논문 중 표제에 나타난 아시안 룩과 관련 용어의 사용 현황

용어	표현	편수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 오리엔탈리즘 복식디자인, 오리엔탈리즘 의상, 오리엔탈리즘 패션, 오리엔탈리즘의 조형성, 로맨틱 오리엔탈리즘 등	14
오리엔탈	오리엔탈 룩, 오리엔탈 스타일, 오리엔탈 이미지 등	5
동양	동양 복식, 동양적 이미지, 동양 모드, 동양적 복식	5
아시안 에스닉	아시안 에스닉 룩, 아시안 에스닉 스타일	2
동방풍	동방풍	2
아시안 룩		0
계		28

<표 2>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관한 논문과 연구자들의 태도

논문의 제목 (발표년도)	오리엔탈리즘 패션에 대한 태도
오리엔탈리즘 복식디자인 연구: 고대 실크로드의 문양을 중심으로 (1992)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취미로 설명하고, 고대 이후의 동양풍을 오리엔탈리즘 복식으로 설명.
현대 패션의 Orientalism: 80suseco 파리 프레타 포르테 콜렉션을 중심으로 (1992)	파리컬렉션에 나타난 일본풍, 러시아풍, 중국풍, 인도풍, 중동풍 전체를 오리엔탈리즘으로 간주함.
현대 복식디자인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조형성에 관한 연구: 1990년대 여성복식을 중심으로 (1998)	오리엔탈리즘을 동방취미 등으로 규정하고 동방풍과 오리엔탈리즘을 혼용하여 사용함.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1999)	동양풍과 오리엔탈리즘을 용어의 구분 없이 사용하며, 모든 동양풍 복식을 오리엔탈리즘으로 설명하고 있음.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90년 이후 패션디자이너의 collection을 중심으로 (2001)	서구중심의 용어인 오리엔탈리즘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없으며, 아시안 에스닉 룩 전체를 오리엔탈리즘 패션으로 설명함.
현대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연구: 1990년대 패션에 나타난 중국문양을 중심으로 (2001)	오리엔탈리즘이 터키 동쪽지역의 예술 전반과 관련된 표현으로 규정한 뒤 중국 문양을 연구.
오리엔탈리즘 의상과 연계한 패션주얼리 연구 (2001)	아시아와 아프리카 북부 지역의 이국적인 민속풍 복식 전체를 오리엔탈리즘 복식으로 규정.
오리엔탈리즘이 현대 패션디자인에 미친 영향에 대한 고찰 (2002)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기 위한 사고방식이라고 설명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동양적 예술취향으로 간주.
오리엔탈리즘 패션의 컬러연구: 2000년 이후 해외 컬렉션을 중심으로 (2003)	아시아와 북아프리카 풍의 복식 전체를 오리엔탈리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오리엔탈과 오리엔탈리즘을 혼용하고 있음.
오리엔탈리즘을 응용한 유니폼 디자인 연구 (2003)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어 있고, 동양적 예술의 예화로 간주함.
현대 패션에 나타난 로맨틱 오리엔탈리즘의 서사적 해석 (2003)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에 대한 관심으로 간주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모순된 논제를 사용.
21세기 초 패션쇼를 통해 본 오리엔탈리즘의 표현법: 2000년 이후 컬렉션을 중심으로 (2004)	중국, 일본, 인도 풍의 스타일 전체를 오리엔탈리즘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오리엔탈리즘에 관한 인식이 결여됨.
현대패션과 메이크업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의 유형 분석 (2004)	오리엔탈리즘을 동양의 사상과 정신에 기반한 동양 문화 전반에 관한 관심으로 간주하고, 서구중심 용어임을 간과함.
현대 속옷 패션에 나타난 오리엔탈리즘 : 2000년~2009년 컬렉션을 중심으로 (2010)	서구의 동양에 대한 호기심을 바탕으로 한 동양의 스타일 전체를 오리엔탈리즘으로 간주하여 속옷을 연구함.

‘동방풍’이 각각 2편 등이었으며, ‘아시안 룩’은 한편도 없었다. 이중 ‘오리엔탈리즘’을 논문의 제목에 사용한 14편의 논문 전수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여 연구자들의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에 대한 자세를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오리엔탈리즘’이라는 용어를 논문 제목에 사용하여 아시안 에스닉 룩을 연구하고 있는 14편의 논문 전체에서는 에드워드 사이드의 오리엔탈리즘을 인용하여 오리엔탈리즘이 서구 중심적 사고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양을 지배하고 재구성하려는 조작된 것임을 설명하고 있고 오리엔탈리즘이 비합리적, 비논리적인 것을 표상하는 체계임을 설명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대부분의 논문에서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이 과거와 달리 동양적 취미, 취향, 동양적 예술성의 표현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을 한 뒤 아시안 룩 전체를 오리엔탈리즘 룩으로 간주한다. 일부의 논문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개념이 동양에 대한 폭력적인 것이라는 점과 단순한 동양취향 전체를 지칭한다는 두 가지의 개념으로 설명한 뒤, 연구의 진행은 후자만을 따르고 있기도 하며, 일부 논문에서는 오리엔탈리즘의 폭력성을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결국 모든 논문에서 아시안 에스닉 룩과 오리엔탈리즘 패션을 구분 없이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동양풍, 아

시안 룩, 오리엔탈 룩 등의 용어와 달리 오리엔탈리즘은 그 용법이 경우에 따라 선택되거나 변질될 수 없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동양의 깨우침(Oriental Enlightenment)』의 저자 존 클라크(John J. Clarke)는 ‘오리엔탈리즘’은 고도의 문체 제기적인 용어로서 중립적 의미로 사용하기 어려운 것이라 하였고, 이슬람학자 버나드 루이스에 따르면 ‘오리엔탈리즘은 이제는 구제될 가능성을 넘어서 오염된 것’⁵⁵⁾이라고 하였다. 패션이 서구의 문화였고 아직까지도 많은 부분에서 서구의 패션에 영향력이 크지만 서구중심의 폭력적인 용어를 여과 없이 추종하여 아시아의 스타일을 오리엔탈리즘 룩 또는 오리엔탈리즘 패션으로 설명하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다.

V. 결론

“동양이란 단어만큼 감정적이고 심지어는 육감적이기까지 한 의미들을 담고 있는 단어는 아마 없었을 것이다. 상황에 따라 ‘동양’이라는 단어가 때로는 매혹으로 때로는 혐오감으로 때로는 공포로 떠오르기 때문이다. ‘동양’이라는 단어는 매우 다양한 이미지들과 결합되면서 그 단어에 해당하는 것들이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 하며, 결국은 때로는 편애하고 때로는 혐오하며 때로는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진다.”⁵⁶⁾

레이몽 슈왑(Raymond Schwab)의 이러한 글과 같이 서양은 동양에 대하여 매혹과 공포감의 대립적인 이미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었으며, 그 결과 서구의 ‘오리엔탈리즘’ 역시 양면적인 성격을 띠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계몽주의 시대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리엔탈리즘에 대한 일차적인 지적 자극은 학문적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유럽의 기독교와 물질주의, 사상적 타락에 대해

높아 가던 환멸감에서 시작되었다. 서양의 동양에 대한 지속적인 매혹은 ‘낭만주의’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따르면 동양에 대한 서양의 관심은 먼 곳에 있는 공상적인 ‘타자’로 도피하려는 욕망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아시아 룩 역시 세계화 시대의 다원주의 경향 속에서 이러한 대화의 시도로 이해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아시아나 아시아 국가의 부각이 곧 아시아 룩으로 연결 되었던 것도 아시아 룩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아시아 룩의 출현은 그것이 동양의 상징적인 내면 세계를 상실한 형식의 차용이었던 점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긍정적인 현상으로 평가될 수 있다. 이에 더하여 점차적으로는 서구의 복식과 아시아 복식의 경계가 허물어져 가고 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오리엔탈리즘이 아시아를 열등한 타자로 간주한다는 본래의 의미가 일부에서 부분적으로 희석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 용어의 사용에 대한 의식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 그것은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인을 범죄자, 광인, 여성, 빈민 등과 연관된 이미지로 사용하여 이미 구제할 수 없이 오염된 용어이고, 서구의 정치적이며 지리적인 폭력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패션관련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는 ‘오리엔탈리즘 패션’이라는 용어의 부적절함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써 이야기 하고자 한다.

첫째,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를 서양과는 다른 이국적이고 이질적인 대상, 괴상하고 후진적이며 관능적이고 수동적인 특성을 지닌, 그래서 서양에 의해 지배되고 교정되어야 할 열등한 타자로 보는 의식을 내포하고 있는 왜곡된 용어이다. 오리엔탈리즘은 정치나 권력의 작용과 함께 위력을 발휘하는 집요하고 교활한 힘으로써 아시아를 일정한 지배의 틀 속에 가두는 문화적 장치와 담론의 체계이다. 오리엔트는 초월적 주체인 서구에 의해 자의적으로 표상되고 창조되었다

둘째, 오리엔트는 원래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그리고 서남아시아를 지칭하는 서유럽 또는 영국 중심의 용어였으나 점차 인도와 동아시아까지 아시아 전체를 가리키는 말로 확대 변질되었으며, 비서구권 전체를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나 서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지금까지도 주로 서남아시아를 지칭하는 용어로 빈번하게 사용된다. 사이드와 클라크를 비롯한 많은 학자들도 오리엔탈리즘이 서남아시아를 가리키는 말임을 지적하고 있다.

셋째, 서구 중심적 용어인 오리엔탈리즘은 아시아의 문명을 무시하고, 서구문명의 역사발전 경로가 동양을 포함한 전 인류사에 보편적으로 타당하며, 저급한 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서구 사회는 오직 서구의 문명을 모방·수용함으로써만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의 사상이다. 따라서 세계화의 시대에 구미 선진국에 필적할 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고 패션 문화와 그 산업이 세계의 중심축 중 하나로 성장한 우리가 이러한 용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넷째,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인체의 착용을 전제로 한 패션의 속성상 서구 패션에 나타난 아시아 안 룩 대부분은 오리엔탈리즘 룩이 아니다. 현대 패션의 유희적인 특성과 미적 범주의 확대 현상으로 인하여 간혹 오리엔탈리즘 적인 특성을 띤 작품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서구 패션에 등장하는 아시아 룩은 대부분은 오리엔탈리즘 룩으로 간주하기 어렵다. 서구 패션에 등장한 아시아의 스타일은 아시아 룩, 아시아 에스닉 룩, 동아시아 풍, 한국 풍 등과 같은 용어를 쓰는 것이 필요하다.

세계 패션의 유행은 파리를 중심으로 한 서유럽 국가들을 시발점으로 하여 유행이 전파되는 시대를 넘어선지 이미 오래 되었다.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는 서구 패션에 아시아 룩의 모티브가 되는 동양적인 이미지만을 제공하는 수동적인 입장이 아니라, 세계 패션 산업의 중심축으로써, 그리고

하이패션의 선도자 중 하나로써 세계 패션을 리드하고 있다. 이것은 다원화 시대의 특징이며 세계는 새로운 형식으로 상호 의존하는 관계를 지향하고 있다. 패션이 서구적인 속성을 띤 문화였으나, 이제는 서구의 것들을 무분별하게 모방하고 수용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서구 중심의 이분법적 편견을 해체해 나가야 한다.

참고문헌

- 1) Said, E. W. (1979). 오리엔탈리즘, 박홍규 옮김 (1993), 서울: 교보문고.
- 2) 서봉하 (2008). Critical Discussion on the Orientalism in Fashion Culture, 한국의류학회지, 32(6), pp.902-910.
- 3) Said, E. W. (2000). 도전받는 오리엔탈리즘, 성일권 옮김 (2001), 서울: 김영사, p.5.
- 4) 정진농 (2003). 오리엔탈리즘의 역사, 서울: 살림, p.16.
- 5) 정진농. 위의 책, p.16.
- 6) Said, E. W. (1979). 앞의 책, p.16.
- 7) 정진농. 앞의 책, p.7.
- 8) Holt, R. B. (1908), Oriental and Occidental, Antique & Modern, Chicago: A. C. McClurg & Co., p.164.
- 9) Clarke, J. J. (1998).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 했는가, 장세룡 역 (2004), 서울: 우물이 있는 집, pp.52-53.
- 10) 서구가 동양을 바라보는 방식이 오리엔탈리즘이라면, 동양이 서구를 바라보는 방식은 옥시덴탈리즘 (Occidentalism)이다. 오리엔탈리즘이 동양을 지배하기 위한 제국주의 담론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옥시덴탈리즘은 서구를 지배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내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사용된다. 옥시덴탈리즘의 서구는 착취와 수탈을 하는 제국주의 국가 내지 선진문명을 자랑하는 민주국가라는 양면성 위에 자리한다. <최강민 (2003). 대중적 판타지 소설과 서구중심주의, 탈 식민의 텍스트, 저항과 해방의 담론, 서울: 이회문화사, p.133.>
- 11) 정진농. 앞의 책, p.13.
- 12) 위의 책, p.29.
- 13) 姜尙中 (1997). 오리엔탈리즘을 넘어서, 이경덕, 임성모 옮김 (2004), 서울: 이산, pp.46-47.
- 14) 위의 책, p.187.
- 15) Clarke, J. J. 앞의 책, p.18.
- 16) 姜尙中. 앞의 책, pp.23-24.
- 17) 위의 책, pp.192-193.
- 18) Halbfass W. (1988). India and Europe: An Essay in Understanding, Albany, N. Y.: State University of New

- York Press, p.440.
- 19) Mackenzie, J. M. (1995). 오리엔탈리즘 예술과 역사, 박흥규 옮김 (2006), 서울: 문화디자인, p.31.
 - 20) Benjamin, R. (1997). *Orientalism: Delacroix to Klee*, Sydney: Art Gallery of New South Wales, p.99.
 - 21) Edwards, H. (2000). *Noble dreams, wicked pleasures: Orientalism in America, 1870-1930*, Princeton, N. J.: Princeton University Press in Association with the Sterling and Francine Clark Art Institute, p.129.
 - 22) Mackenzie, J. M. 앞의 책, p.29-30.
 - 23) 300 Movie (2007), 자료검색일 2013. 12. 5. http://www.wildaboutmovies.com/movies/300_Movie.php
 - 24) 300 Movie (2007), 자료검색일 2013. 12. 5. http://www.wildaboutmovies.com/movies/300_Movie.php
 - 25) 정진봉, 앞의 책, pp.37-38.
 - 26) Steel, V., Major, J. S. (1999). *China Chick: East meet West*,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p.71.
 - 27) Ibid., p.72.
 - 28) 신주영, 김민자 (2006). 18세기 로코코 패션에 나타난 시누아즈리, *복식*, 56(1), pp.13-31.
 - 29) Geczy, A. (2013). *Fashion and Orientalism: dress, textiles and culture from the 17th to the 21st century*, London; New York: Bloomsbury Academic, p.53.
 - 30) Deslandres, Y. (1986). *Poiret: Paul Poiret, 1879-1944*, Paris: Editions du Regard, p.122.
 - 31) 김민자 (2009). 한국적 패션 디자인의 제다움 찾기: 전통미와 현대적 활용을 중심으로,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p.157.
 - 32) Steel, V., Major, J. S. 앞의 책, p.71.
 - 33) Hall, S. (1968). *The Hippies: An American Moment*, Centre for Contemporary Cultural Studies, Birmingham: University of Birmingham, p.5.
 - 34) 김민자 (1987). 2차 대전 후 영국 청소년 하위문화 스타일, *한국의류학회지*, 11(2), pp.69-89.
 - 35) Skov, L. (2003). *Fashion-Nation: A Japanese Globalization Experience and a Hong Kong Dilemma*. In Niessen, S., Leshkovich, A. M. & Jone C. (Eds.), *Re-Orienting Fashion* (pp.215-242). Oxford: Berg, p.216.
 - 36) Sainderichin, G. (1999). *Kenzo*, New York: The Vendome Press, p.35.
 - 37) Skov, L. op.cit., p.218.
 - 38) Ibid., p.222.
 - 39) Corliss, R. (1993. 9. 13). *Pacific Overtures, Time*, 자료 검색일 2014. 2. 4. <http://content.time.com/time/magazine/article/0,9171,979204,00.html>
 - 40) 서봉하 (2004). 1990년대 이후 에스닉 룩의 폐쇄형과 개방형의 시기각적 연구, *복식*, 54(4), pp.145-156.
 - 41) 서봉하 (2008). 앞의 책, p.906.
 - 42) 姜尙中. 앞의 책, p.187.
 - 43) Alloula, M. (1981). *The Colonial Harem*. Godzich, M. & Godzich, W. trans (1986). Minneapolis: University of Minneapolis Press, p.126.
 - 44) Geiser, J. *Galerie de photographies*, 자료검색일 2013. 12. 19. http://fr.wikibooks.org/wiki/Photographie/Personnalit%C3%A9s/G/Jean_Geiser
 - 45) 姜尙中. 앞의 책, pp.23-24.
 - 46) 서봉하 (2008). 앞의 책, p.906.
 - 47) Sui, A., 2004 S/S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97, p.63.
 - 48) Gaultier, J. P., 2005-06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108, p.221.
 - 49) Fritzenschaft, L., 2000-01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77, p.361.
 - 50) Haute Couture Brides, 2004 S/S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99, p.343.
 - 51) Dior, C., 2003-04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95, p.409.
 - 52) Galliano, J., 2003 S/S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92, p.330.
 - 53) Lacroix, C., 2003 S/S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90, p.459.
 - 54) Gaultier, J. P., 2002-03 F/W collection, *Collezioni Donna*, No.89, p.300.
 - 55) Clarke, J. J. 앞의 책, p.18.
 - 56) Schwab, R. (1950). *La Renaissance Orientale*, Paris: Payot, p.12.

A Study on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Orientalism in Fashion

Seo, Bong Ha

Associate Professor, Dept. of Stylist, Yong-in Songdam College

Abstract

Orientalism divides the West and the East dichotomously, and represents the relative superiority of the West by justifying the domination of the West over the East. In Western costume culture, the history of Asian style is long, and the Asian look has been constantly appearing in Western fashion. Although fashion fundamentally has Western attributes, it is not appropriate to accept the West-centered word, Orientalism, unconditionally, and use it thoughtless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on the concept of Orientalism in fashion, and methodology includes literature and empirical research. The word Orientalism, first, considers the East vulgar and inferior. Second, it is distorted by the West in a stubborn and cunning way. Third, the Oriental region the term indicates is generally the Southwest Asian region. Fourth, it represents the logic that the East can develop only by accepting the West. Therefore, it is improper to use Orientalism together with Asian look indiscriminately. It is expected that, through this study, the concept of Orientalism in fashion will be correctly established and the West-centered dichotomous bias toward Orientalism will disappear in our fashion culture.

Key words: Orientalism in fashion, orient, Oriental look, Asian ethnic look, Asian costume